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19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는 믿고 맡길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매우 혼란스럽다. 각 정당들은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편 정당을 지지하면 국정혼란이 온다고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술로 선거에 승리하려고 한다. 정권심판론, 말 바꾸기 정당 등 온통 상대방 비난으로 가득 차 진정 자신들은 무슨 정치를 하려는 지 쉽게 알 수가 없다. 지난 4년간 여당이나 야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야는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협조하기는커녕 파행과 갈등으로 국정을 파탄 속에 빠트렸다. 국가는 없고 정당과 정파만 있었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선했고, 정치적 경륜보다는 몸을 던져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의 인기만을 얻기 위해 복지정책에서 보수 여당은 진보 야당보다 앞서 치고 나가려고 했고, 진보 야당은 여당의 상황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권 당시 자신의

정책을 부정했다. 우리에게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나 책임 있는 정당이 있는지 묻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여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새롭

고 능력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인기있는 인물을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전략으로 이루어진 공천시스템은 공당으로서 갖출 자세가 아니다. 마치 이런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인 것처럼 하다 보니 공천을 받기 위한 여론조작과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치는 민주화 이후 꽃을 피우는 듯했지만 퇴보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권한을 국회와 정

의원을 대거 갈아치우는 등 또 한편의 정치 세일을 감행하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도 후보자들의 정견이나 능력보다는 그들의 이미지와 작은 결점을 부각시켜 흥미 위주로 선거보도를 한다. 지난 서울시장 보선을 분석해보더라도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 모두 후보들의 정책이나 능력에 대한 보도보다는 후보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세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여론 물이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술만이 난무하게 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치가 판을 치게 된다. 성숙한 정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 한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을 비난하고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사리사욕에 빠져있던 우리 선조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 일본이 미국을 앞서갈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긴장시켰지만 정치의 무능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가 더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더더욱 퇴보할 것이다. 이번의 시민혁명을 꿈꾸게 될지 모르겠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들

게 출발했지만 새로운 정치비전이나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줄 해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여당의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한창 반사이익을 받던 민주통합당도 공천과정에서 실망감을 안겨주는지 마찬가지이다. 현역의원 절반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길 만한 후보를 낸 공천전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사실 국민들을 호도하는 전술에 불과하다. 정치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경륜

치권에 부여했지만 그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실재했다. 예산권, 국정감사권, 입법권이 강화되고 장관 청문회 등 견제 기능도 강화되었지만 국정운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난장판처럼 되었다. 막말이 난무하고 꼬투리 잡아 본질을 호도하고 정견과 철학 없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책임보다는 권한에 관심이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고 국회의원을하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은 공천권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러 현역

시설

선심성 공약 '남발' 유권자가 심판해야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 쪽이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쪽은 포장담 달라해 내놓는 식이다. 문제는 여야가 재원조달 방안 없이 '복지 확대' 등 공약을 중구난방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익은 선심성 공약이 불려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후보가 광주·전남 총선 후보 83명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복지분야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취약계층 복지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실현 등은 이미 각 당의 공약으로 나와있는 사안이다. 철저한 검토없이 마구잡이로 내놓은 공약이 과연 어떤대로 실현될 지도 의문이다. 반도체공방, 실버 단지 등 각종 땅을 폐쇄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연간 80만 명에 달하는 노고단 탐방객을 감안하면 케이블카만이 지리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입장이다. 영암군도 영암읍 기체육공원에서 월출산 산성대(1,990m) 구간에 200여 원 을 들여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관광소득 증대와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립공

원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 시도민행동은 "케이블카 설치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며 성삼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관광수요에 기대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사람이 몰리고, 생태계는 어떻게든 망가지게 되어 있다. 유일하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 관악산, 덕유산, 설악산 등이 유원지로 변모해가는 상황이 아닌가. 또한 경제적 모델로 거론되는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자가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수나 환경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분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런 면에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론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지리산·월출산 케이블카 일방 강행 안 된다

구례군과 영암군이 최근 지리산과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구례와 영암군은 생태복원 등을 설치 이유로 내세운 반면 환경단체는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례군이 계획 중인 케이블카는 산동 온천지구에서 노고단 KBS중계소 하단 부 4.3km 구간으로, 3년 동안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성삼재 관동도로와 주차장 등을 폐쇄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연간 80만 명에 달하는 노고단 탐방객을 감안하면 케이블카만이 지리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입장이다. 영암군도 영암읍 기체육공원에서 월출산 산성대(1,990m) 구간에 200여 원 을 들여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관광소득 증대와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립공

원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 시도민행동은 "케이블카 설치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는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며 성삼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관광수요에 기대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사람이 몰리고, 생태계는 어떻게든 망가지게 되어 있다. 유일하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 관악산, 덕유산, 설악산 등이 유원지로 변모해가는 상황이 아닌가. 또한 경제적 모델로 거론되는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자가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수나 환경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분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런 면에서 케이블카 설치하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론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네팔에서 온 편지 13



박행순

네팔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하인석씨 부부는 한국 교민 중 그 역할이나 연차에 있어서 단연 원로급에 속한다. 네팔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주는 것이라고 여기며 하씨는 연수원을 설립하여 네팔의 젊은 청년들을 가르친다. 요즘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젊은이들도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세계인으로 살도록도 전의식과 안목을 키워준다. 청년들은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빈민촌에 가서 노력봉사도 하며 음악도 가르친다. 네팔의 학교에는 음악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이들

을 가르칠 수 있다. 또 네팔에는 한국어 붐이 크게 일고 있어서 네팔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타문화에 경험하고 섬기며 사는 법을 배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네팔어도 짧은 기간에 끝날 구사하게 된다. 하씨는 또한 네팔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부 세미나, 자녀 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결혼예비학교 등. '아버지학교'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그대로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남편이 무릎 꿇고 아내의 발을 씻겨 주는 순서에서는 장내가 온통 눈물바다가 된다. 철저한 남성중심의 전통 문화 속에 길들여진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것은 일생 중 최대 감격의 순간이다. 네팔 사회, 특히 시골에서는 하늘과 땅이 뒤

네팔속의 한국인들에게서 배운다

집하는 현자인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정년퇴직 후 봉사하며 장기적으로 살려고 들어오는 실버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5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며 다양한 전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씨는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실버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도 해준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고 격려를 받는다. 그들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현지인 여성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돕거나 국제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금으로 편하게 사는 삶을 마다하고 이곳에서 대안가정을 만들어 고아와 가정형편이 어려워 말간 1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부부도 있다. 외부 후원 없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더니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큰돈은 들지 않는

다고 대답한다. 실버모임에서 최근 관광객으로 입국한 두 60대 봉사자들을 만났다. 한 분은 네팔이 너무 좋아서 여섯 번째 왔다고, 시설의 수리, 보수 등 무슨 일든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다른 분은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가는 곳마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튀밥 빵튀기 기계로 튀밥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 가난한 시절 우리도 좋아했던 튀밥은 푸짐한 먹거리가 된다. 또 하모니카 연주도 입만 아니라 귀도 즐겁게 해준다. 그는 서울시의 고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매년 3개월씩, 두 차례, 6개월을 이렇게 외국에서 봉사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자 도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노년들도 한국의 안정되고 인락한 삶에 안주하는 대신 다양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세계인으로 사는 것을 마다 네팔에서 본다. 나는 하인석씨 부부를 비롯하여 네팔에 사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들과 여러 삶의 방식들을 보고 배운다. <파란의대 객원교수·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기고

도시철도 2호선 터미널 경유는 올바른 선택



염경민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할 공약을 뽑는 일이다. 다양한 공약과 당론을 내걸고 국민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 중에서 공약에 가장 부합한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겠다는 일인 또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투표는 입후보자들이 선택한 사고가 올바른지 아닌지, 혹은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맞는 판단인지를 결정하여 선택과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유권자의 양식인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결정과 선택의 역사일 것이다.

그러나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정책 결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입장과 사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요구들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단체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대다수 시민 복지와 편익에 부합하는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올바른 선택을 통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졌을 때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정과 시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책결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3월 27일 광주일보 보도와 같이 강준태 광주시장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버스터미널과 무등경기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을 수정하는 주문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감시자의 결정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시민들이 쌍

수를 들어 바라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강시장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기존 결정을 존중하지만 무등경기장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정착지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두 곳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전국의 도시들과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다. 또한 유·스퀘어라는 복합문화시설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다. 그 주변에 소공원과 예식장 등 생활의 필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사람이 많이 찾고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당연한 것이다. 교통이 혼잡하다고 손 놓고 탓만 할 것인가? 대책이 있는데, 그리고 현실화할 수 있는데 피해질 것인가? 이미 계획된 지하철 2호선의 노선에 터미널을 경유토록 하면 될 것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인 버스터미널

을 지하철이 언제 운행하는 것은 해당 시민은 물론 외지 손님들을 편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통의 분산효과로 교통 흐름의 개선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비용도 줄어 들 것이다. 또한, 편리한 연계로 자가용 이용의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외지 손님들에게 광주를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등경기장은 어떠한가? 가장 사랑받는 경기 중에 하나인 프로야구 경기 무등경기장에서 있는 날이면 2만~3만 명의 관중과 이용차량들로 인해 교통혼잡에 익숙해 있다. 해태시절부터 프로야구는 광주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공동체적 희로애락의 한 장이었다. 지금도 가장 즐거운 레저문화의 위상을 차지하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더욱 편안한 관람과 가족의 건전한 레저문화 발전을 위해서 신축하고 있는 야구장은 세 단정한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교통의 불편함을 그대로 놔두고 가면 이런 개선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라도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두 곳의 지하철 경유는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하는 바다. <희시원>

청소 노동자들 위한 휴식공간 의무화 필요하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소일거리 삼아서 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무 환경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건물이건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는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그 업무 성격상 100% 계약직이거나, 혹은 청소용역업체

의 과전직이다. 신분이나 보수를 가지고 평가하자면 우리 사회 일반 근로자들 중에 가장 하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분이 그래서인지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데 그중에서도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이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병원에 가 보면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보관실 같은 창고뿐이다. 이런데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우리 같은 청소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다"고 하셨다. 그 말 들으니 속이 많이 상했다. 그리고 모두 계약직이다 보니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청소 도중에 부러진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제대로 된 마스크나 장갑도 제공되지 않아 오염물질에 노출되기도 한다. 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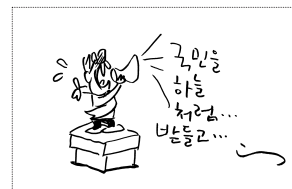
공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중증거리며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직종이 아무리 계약직인 청소 노동자라 해도 적절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게 사업주의 의무 아닐까.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대부분 계단 밑이다. 그것은 곧 지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래야만 하나. 앞으로 큰 빌딩을 지을 때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의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종식·목포시 동명동

無等鼓

선거의 꽃은 유세(遊說)다. 정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무소속으로 나선 4·11 총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거리로 나와 유세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곳곳에서 표를 얻기 위해 사자후를 토하는 후보들의 유세를 지켜보며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유세는 단지 오늘날의 선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중

공자는 고생만 하고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공자가 왕들을 만나 설파한 것은 주로 인의예지와 도덕이었다. 당시 왕들은 전쟁에서 이길 방도나 부국강병이 주된 관심사였지만 공자는 이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공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백성과 국가를 다스리고 인간 본연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유세했지만,

유세(遊說)



실리를 우선하는 왕들에게는 영 입맛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4·11 총선 후보들은 유세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후보들은 대부분 유세 내용을 일지라리 창출, 복지 증대, 지역현안 해결로 채운다. 반면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 가운데 과연 얼마나 공감할지는 알 수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공자의 유세가 왕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후보들의 유세는 단지 표를 구하는 읍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